

演題抄錄

— 1 —

소아 신증후군환아의 혈중 HBsAg 및 Anti-HBs 양성을

경북의대 소아과
김연옥 · 이진수 · 구자훈

병리과
김 용 진

1980년 11월부터 1984년 2월까지 만 3년 4개월동안 경북의대 부속병원 소아과에 입원한 신질환환자 287명을 대상으로 RIA 방법에 의한 혈중 B형간염표식자(HBsAg, Anti-HBs)를 측정하여 B형간염과 각종 신질환과의 연관성을 살펴 보았다. 이중 신조직검사를 시행한 76예중 HBsAg 양성인 환아 14예의 신조직을 PAP 방법으로 HBsAg staining을 시행하였다. 대조군으로서는 중추신경계, 소화기계, 호흡기계 감염 및 선천성 심장질환으로 입원한 환아 621명을 택하였다.

HBsAg 양성율은 신질환환자 287예중 26명인 9.1%로 대조군의 621예중 31예인 5.0%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다($p < 0.05$). Anti-HBs 양성율은 신질환환자 8.0%, 대조군 8.5%로서 큰 차이가 없었다.

각종 신질환에서의 HBsAg 양성율은 1차성신증후군 54예중 11예로 20.4%, 급성사구체신염 152예중 11예로 7.4%, 알페르기성자만증신염 46예중 3예로 6.6%, 만성사구체신염 7예중 1예로 14.3%로서 1차성신증후군에서의 HBsAg 발현율이 월등하게 높았다($p < 0.01$). Anti-HBs 양성율 역시 1차성신증후군은 14.8%로서 급성사구체신염 8.6%, 알페르기성자만증신염 4.3%보다 높은 율을 보였다.

신조직검사에서 확인된 1차성신증후군 54예중 각 형태별로 살펴 본 HBsAg 양성율은 MCNS 36예중 6예로 16.7%, FSGS 5예중 1예로 20.0%, MGN 8예중 4예로 50.0%로서 MGN이 가장 높은 양성율을 보였고($p < 0.05$), MsPGN 3예, MPGN 1예는 모두 음성이었다. Anti-HBs 양성율은 MCNS 13.9%, FSGS 40.0%, MPGN 50.0%이었고 MsPGN, MGN은 음성이었다.

혈중 HBsAg 양성인 1차성신증후군환아 11예와 알페

르기성자만증신염 2예, 만성신염 1예에서의 신생검조직을 PAP kit(DAKO 회사)를 사용하여 HBsAg 염색을 하였으나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.

— 2 —

소아 신질환에서의 B형 간염 표지에 관한 연구

연세의대 소아과

이영철 · 최정혜 · 이재승 · 김병길

소아 신질환과 B형 간염과의 관계를 관찰하기 위해 1979년 1월부터 1984년 3월까지 만 5년 3개월간 연세대학교 부속 세브란스병원 소아과에 입원한 신질환환아 830예를 대상으로 환아의 혈청 및 신조직에서, 그리고 환아가족의 혈청에서 B형간염 표지에 관한 검사를 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.

신질환 환아 830예중 혈청 HBsAg 양성은 67예(8.1%)로 대조군 167예중 8예(4.8%)와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의의가 없었다. Anti-HBs 양성율은 신질환 환아에서 57예(6.9%)로 대조군 14예(8.4%)와 비교하여 역시 통계적인 의의가 없었다($p < 0.05$). 또 신생검을 시행한 407예중 HBsAg 양성은 52예(12.8%)로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으며, anti-HBs 양성은 35예(8.6%)로 통계적인 의의가 없었다.

혈청 HBsAg 양성율은 Mesangioproliferative 사구체신염과 막성사구체신염(Membranous Glomerulonephritis)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고, 혈청 anti-HBs 양성율은 각 질환 모두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.

HBsAg 혈증이 동반된 막성사구체신염 8예중 5예에서 형광항체법으로 사구체에서 HBsAg 침착이 있음을 증명하였다.

또 혈청 anti-HBc를 조사한 9예중 7예에서 양성이었다고, 혈청 HBcAg을 조사한 7예중 4예에서 양성이었다.

HBsAg 혈증을 동반한 신질환 환아의 가계에서 혈청 HBsAg 및 anti-HBs 양성율은 각각 32.0%였다.